

順天金氏始祖史蹟地沿革碑

順天의 始祖 史蹟地 域內에 세워진 沿革碑 全文을 轉載함
(글씨는 無影 金仁厚 宗親이 씀)

始祖 史蹟地 沿革

우리 順天金氏는 新羅宗姓으로 始祖의 諱는 摠이요 字는 元領이시며 官은 新羅憲安王朝에 引駕別監을 지냈으며 平陽君에 追封되셨다. 百姓들을 寬厚하신 마음으로 大스리 고 일기 殿師(箕子)가 傳한 三綱五倫六藝의 가르침을 갖고 國人들을 啓導하셨다. 돌아가신 후 高麗初나라에서 順天東部進禮山에 城隍祠(後安官祠)로 改稱을 세우고 公과 朴平陽蘭鳳의 影幃를 함께 모셔 놓고 致祭官을 보내 祭享을 올렸다. 仁廟(二二七年)에 李忠武舜臣을 追配하셨는데 高宗戊辰(一八六八年) 百神撤享時에 毀撤되었다. 順天 金氏後孫들은 始祖影幃만을 同年九月에 性海主管理在 鍾秀鍾翊主務下에 昇州郡佳岩面五聖山西岑同源齋正堂(公의 墳庵)에 移奉安置하였다. 墓所를 失傳한 後九百餘年 동안子孫들의 墳墓를 찾지 못한 恨이 하늘에 닿을 즈음 李朝純祖戊子年(一八二八年)에 後孫炫淳의 至誠이 努力 끝에 尋得誌石하여 遵浩洵中 益範昇台昇實等이 封墳을 改築 하고 局內를 整理하였다. 憲宗己亥年(一八三九年)에 鍾學鍾鍾善等이 主管理하여 同源齋를 創建하고 이듬해에 金子孫들의 精誠을 모아 奉祀 齋을 買入하였다. 哲宗壬子年(一八五二年)에 墓碑를 세우고 墓表陰記에 累代顯祖任들의 官爵과 銜字를 세겨 後世에 永久히 傳하도록 하였다. 隆熙甲寅年(一九一四)에 鍾善琮在 鍾秀鍾翊主管理으로 同源齋를 重修하였고 一九五九年에 二次로 重修하였다. 一九七四年에 相聲主管理으로 錫斗外十餘名이 協力하여 三次重修하였으나 年古世深하여 비가 많으므로 一九八一年 福山主管理下에

商穆東洋이 協力하여 齋室重修와 倉庫一棟도 新築하고 位當八九五坪도 買入하였다. 尤復直後 社會가 無秩序할 때 永奉中熙等이 墓域守護와 位土保全에 盡力하였다. 一九五〇年六·二五 動亂이 일어나 兵火가 同源齋附近까지 接近한 다는 所聞을 들은 鍾煜東健이 惶急히 同源齋로 달랠 의 影幃를 모시고 自己마음에 있는 德義齋(任實派先代墳庵)에 移奉安置하고 享祀를 올려 오다가 社會가 安定된 後 同源齋로 還安奉享케 하였다. 世譜는 네 차례나 刊行하였으나 大同譜刊行이 氏族의 宿願으로 내려고 오던 중 全國宗親代表者會議의 滿場一致贊同에 따라 編纂委員會를 創立하고 會長이 鍾鎬副會長이 炳鎰 東秀 總務兼 財務 梁永宗 務務에는 大淵 赫熙等이 選出되어 大田市元洞에 商配가 無料提供한 建物에 一九八三年三月十五日 譜所를 開設하고 俊永仁熙等이 常勤始務爾後各派代表가 參席하였다. 大同譜(甲子譜)를 마친 後一九八四年十一月 總會를 開催하고 決算餘財五仟四百餘萬원을 基金으로 始祖史蹟地를 淨化하기로 決議하니 事業의 規模는 影堂을 新築하고 齋室은 完全히 撤去하여 擴新築靑瓦를 입힐 것이며 墓域을 擴張하는 同時 入山路를 들계단으로 施工들과 石으로 改封墳하고 墓碑를 改立長明燈을 新立하고 齋室 앞 位當을 買入入齋路補修를 하는 豫算額을 約八仟萬원으로 잡고 不足金 調達은 族譜一帙當五仟원과 全國宗親世帶當五仟원式을 檢出하고 會長과 總務가 特志誠金으로 仟萬원을 募金하여 充當할 것을 아를 異議없이 決議하였다. 이 消息을 들은 昇淵이 一仟參百萬원을 自進獻誠함으로 事業推進은 더욱 活氣를 띠게 되어 마침내 一九八四年十二月七日 工事에 着手하여 東英有司 監督으로 工事를 無事히 마치고 一九八五年九月一日에 影幃를 新築影堂으로 移安告由을 올림과 同時에 同源齋 竣工式도 盛大히 舉行하였다. 이로써 影堂祭祀를 每年陰十月一日 墓祀日에 같이 올리는 것을 一九八六年부터 는 影堂祭祀日을 새로 擇日하여 陰三月六日에 春享祭를 올리게 되었다. 얼마 후 昇淵이 入齋路約一仟米를 시멘트로 鋪裝하고 三門 앞에 位當八百七十二坪과 三百二坪을 買入하고 防築池도 工事 環境美化作業까지 하여 同源齋의 面積을一新하였다. 一九八五年十一月十二日 墓祀前夜에 決算總會를 열고 總工事費八仟餘萬원을 除外한 殘餘金二仟餘萬원을 典書公의 位土 買入 支援金으로 二百萬원 芳春書院重修費로 三百萬원 同源齋管理基金 五百萬원을 備置하고 殘餘金中 一仟萬원은 襄景公史蹟地淨化事業 充當金으로 殘金處理하였다. 完壁한 守護管理을 위하여 一九八五年에 守護管理委員會를 組織하고 會長이 鍾鎬總務에 梁永都有司에 炳鎰有司 東英南珠 등이 選任되어 管理에 萬全을 期하고 있다. 夏季放學期에 敬養講座를 開設하여 宗親 大學生들에 對한 略史와 冠婚喪祭에 對한 儀禮 族譜의 淵源과 찾는 方法을 講義하고 其他 特講으로 實生活에 對한 常識等 四泊五日 期限으로 本齋室講堂에서 一九八六年부터 現在까지 九회에 걸쳐 實施한 結果 修了生 一六七名을 輩出했다. 講義는 主로 梁永俊 俊永 仁熙 志淵이 맡고 特講은 赫熙 料元 應烈 相煜 斗熙 享民 好載等이 해주었으며 教材 編輯은 總務計劃과 進行은 炳鎰이 擔當하고 있으며 一九八九年에 中央宗親會(會長 鍾植)가 創立되면서 一九九〇년부터 이 事業이 中央宗親會 主管理으로 이어지고 있다. 始祖影幃를 文化財로 登錄코자 資料의 蒐集은 우리 先祖任들의 文獻과 順天邑誌 昇州郡誌 順天市가 發刊한 내고향 및 年사람들中에서 拔萃 一九八八年三月二十四日 字로 全羅南道知事에게 申請書를 提出하였다. 이 事業推進에 는 料元이 全的으로 말아 最短期間인 同年十二月二十一日 字로

全羅南道地方文化財第二七號로 指定되니 이로써 始祖影幃는 歷史的 遺物로 公認되었다. 一九九一年 振聲의 專擔으로 두 차례에 걸쳐 一〇二坪과 八百六坪의 田畓을 買入하고 約五仟坪의 位土를 農地 整理하였다. 一九九二年 서을 宗親會(會長 赫熙)會員 四十九名의 誠金으로 題字는 仁厚가 쓰이고 計劃과 監理는 炳鎰이 맡아 順天金氏始祖史蹟地入口라 는 巨大 標石을 洞口에 세웠고 一九九三年 炳鎰 赫熙 振聲等이 힘을 모아 史蹟地 標石을 齋室入口에 세웠다. 一九九三年 鍾植의 周旋으로 昇淵이 始祖墓域을 크게 改築草하고 墓碑를 除外한 모든 石物을 雄壯히 改替하니 一九六一年(辛丑)그의 祖父在 民과 父親 鍾喜에 이은 三代에 걸친 大宗事이다. 宗財現況은 林四筆地에 六仟五百九十坪이 고 堡地가 一筆地에 一百七十四坪 田이 二筆地에 八百三十二坪 畓八筆地에 六仟四百七十九坪이 며 家屋은 八棟에 三十三間半이다. 管理現況은 本委員會會長 鍾鎬와 副會長 炳鎰 梁永都有司 東英南珠在 燮等이 管理하고 있다. 上代事는 仔細한 遺誌가 있어 概略만을 記錄한 아카이브가 있으나 近代事는 記錄도 分明하고 後賢들에 對한 記가 되겠기에 本會 創立十週年을 맞이하여 이에 들에 새겨 세우다.

西紀 一九九五年四月五日

順天金氏始祖史蹟地守護管理委員會 立

隨筆 벌에게서도 배울것이 많다.

벌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면 비록 곤충이지만 한치의 거짓이 없 이 끈이 끈대로 正直하게 하나로 뭉치는組織體이 면서도 各各分業 的으로 하나하나의 目標로 團合하여 秩序있게 活動하 는 것은 神奇하기 만 하다. 벌집에 서 에벌레가 成蜂 이 되어서 나오면 그 成蜂은 벌동안 에서 한가지 役割 을 配當받게 된 다. 그 團體내에서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 을 찾아서 꿀을 따오는 일 王蜂護 衛役, 집짓는 일, 물(水) 운반 役, 出入門守備 役, 새끼 기르는 일, 桶內清 掃 役이 있으나 자

己가 맡은 일에만 專念하고 內 部秩序를 徹底히 지키는 것을 볼 때 사람으로서 驚歎을 禁 할 수 없다. 좋은 먹이(꽃)를 發見했을 때는 개별리 自己집 (벌동)으로 돌아가서 同僚들 에게 몸짓 발짓으로 그 方向 과 距離 등을 알린다. 同僚들 들은 그곳을 向하여 손발같이 날아가는 모습은 빗방울이 었

싸움을 한번 치룬 벌은 침이 빠 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 들은 종족을 爲하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벌들이다. 平和 時에는 女王蜂은 שלי시 없이 產卵을 하여 種族 繁殖에 餘 念이 없으며 일벌들은 밤잠도 자지 않고 날개 짓으로 꿀의 水分發散을 하여 一 等 꿀로 만 들고 있다. 出入門에 들어 있 는 哨戒蜂도 24時間 任務遂 行을 徹底히 해서 外侵을 막 아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生 成된 꿀은 더없이 좋은 食品이 며 벌의 針에 쏘이면 神經痛 이 治療 되기 도한다. 벌의 勤 勉性과 團結力을 標榜하여 옛 날 로마 帝王의 制服에는 벌의 문양이 수놓여 있는 것은 國 民의 一致團結을 呼訴함이다. 우리도 벌에게서 正직하고 근 면하며 맡은바 役割에 忠實하 고 同族을 爲하여는 목숨을 거 는 희생정신을 본받을 것이 다.

1995. 2. 15
金五淵
(總務幹事 黃蜂業)



「善行宗親」

朴鍾玉烈婦의 참된 善行

烈婦 朴鍾玉宗人은 忠南天 安에서 1938年 6月 6 日 父親 密陽朴英圭公과 母 親 新昌孟氏 사이에서 二男四 女中 三女로 태어나니 천성 이 온후하고 총명하였으며 특히 孝심이 지극하고 형제 와 之間에 우애가 두터워 이웃에서는 보기 드문 규수라 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차차 成長하여 1966年 朴烈婦의 나이 28세 되던 6月 28日 司藝公의 二男 順善 代孫인 昌錫公의 二男 順善 宗人과 結婚하였다. 夫君 順 善宗人은 비록 黃海道 鳳山 에서 越南한 난민이라 財政 上의 淸요는 없었으나 本心 이 淸하고 仁음이 두터워서 監理敎牧師로서 敎會開拓에 專念하여 敎勢도 擴張하고 子

女도 一男二女를 두 게 되며 그런대로 부 間에는 행복한 세 월이 계속되던 中 7年 2月 13日 煉 炭가스事故로 順善 宗人은 心身장애자 가 되어 家計는 돌 째요혼자서는 기동 을 할 수 없는 重한 자 가 되어 자리에 누 게 되니 이때부터 2 0年 가까이 세월을 오직 夫君의 손발이 되어 명의를 찾아서 는 좋은 약을 구하 여 侍湯하는 등 온갖 치료와 간호에 정성 을 기울이는 한편 三男妹의 敎育問題

와 生計問題等 그간의 고초 를 이루다 표현할 수 있으리 요. 朴烈婦의 참된 善行에 全 國의 宗親은 뜨거운 찬사를 보내면서 아무쪼록 子女도 成長하였으니 孝道도 받으면 서 仁음의 생활을 충실히 하 시고 社會奉仕도 활발히 하 시기를 빕니다.

(二無)

「二十년의 긴 세월 남편의 손발이 되어 믿음의 생활로 사회봉사도 활발히」

女도 一男二女를 두 게 되며 그런대로 부 間에는 행복한 세 월이 계속되던 中 7年 2月 13日 煉 炭가스事故로 順善 宗人은 心身장애자 가 되어 家計는 돌 째요혼자서는 기동 을 할 수 없는 重한 자 가 되어 자리에 누 게 되니 이때부터 2 0年 가까이 세월을 오직 夫君의 손발이 되어 명의를 찾아서 는 좋은 약을 구하 여 侍湯하는 등 온갖 치료와 간호에 정성 을 기울이는 한편 三男妹의 敎育問題



第十回 大學生 교양강좌 안내

중앙총친회에서 지난 8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교양강좌를 금년도 第十回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전국의 중견 여러분께서는二世 敎育사업 의 일환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順天金氏의 자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十回대학생교양강좌에 참석코자 하는 회 망자는 중앙총친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 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예정일: 8월중순(5일간)
- 강좌장소: 전남 승주군 주암면 주암리 방축 동 始祖齋室(同源齋)
- 강사: 宗親中에서 전원위촉(대학교수, 법관, 학자 등)
- 강의제목: 族譜의 연원, 편집내용, 家禮상 식, 先祖의 略史, 생활법률 및 일반상식 기타
- 수강신청자격: 順天金氏로서 남녀 대학생과 동등의 학력소지자(고교를 졸업한 자 포함)
- 입소자 결정: 七月五日까지 접수하고 30 명정도 선발
- 입소에정일: 추후 서면으로 통지함
- 수강료: 무료(숙식비와 교재비 등 모든 경비 를 중앙총친회에서 전담함)
- 기타: 수강수료증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개별우송함
- 문의사항: 전화(02) 718-0529 또는 서면문의 할 것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務部

祝

宗報第十號發刊

潭陽宗親會

會長 金炳錫
副會長 金志元
總務 金龍錫
監事 金海錫
金珠元
金榮元

天安牙山宗親會

會長 金鍾鎬
副會長 金泰淵
總務 金東賢
監事 金吉弘
金東濟
金泰賢

忠北宗親會

會長 金志淵
副會長 金東燦
總務 金東燦
監事 金東燦

水北公派宗親會

會長 金善貞
副會長 金讚貞
總務 金商貞
監事 金顯貞
金效貞
金貞貞

清州宗親會

會長 金圭淵
副會長 金英熙
總務 金永寬
監事 金秀永
金永寬

全州宗親會

會長 金鍾判
副會長 金東萬
總務 金東萬
監事 金鍾九
金東萬
金九萬

南隱公略史

南隱公은 諱가 孝友요 官職은 潭陽府使이며 南隱은 公의 雅號이시다. 1408年 世宗 11年에 서울에서 태어나니 父는 通政大夫 戶曹參議 諱之 海요 祖父는 通政大夫 求禮縣監 諱 安吉이시며 曾祖가 文科吏曹正郎 諱有恭이시고 高祖가 襄景公 이시다. 公은 1450年 世宗 32年에 文科에 及第하여 將仕郎 通政大夫 司憲府監察 別侍衛를 거처 潭陽都護 府使에 올랐

여 그루를 손수 심어 公은 芳春이라 하고 드디어 歸來辭를 외우며 後學을 教導하였다. 집뒤에 祠堂을 짓고 節齋公의 位牌를 奉設하고 每年 10月 10日에 享祀를 올렸다. 1904年 高宗 光武 八年에 公의 行義를 禮部에 품달하여 芳春書院(舊三祠)에 追配되니 事實이 湖南三綱錄과 海南郡誌 등에 登載되었고 墓所는



남은공이 심은 桐柏樹林

다. 1453年 端宗 元年에 從叔 節齋宗瑞 相公三父子가 癸酉難에 被禍殉節함을 듣고 곧 벼슬을 버리고 아우 孝孫進士와 같이 南下하여 海南 清溪面 黑石山下에 은둔하여 살면서 소나무와 잣나무 千

芳春洞 鉢孟山 子坐原에 있다. (一無) 公의 遺詩 菜西山之翠薇、 渡東海之明月

月潭祠 正謁茶禮 陰正月十五日 廟庭에서 嚴修



지난 2월 14日(陰正月 15日) 月潭祠 廟庭에서 正謁茶禮를 奉行하였는데 今年에는 事前에 參禮勸誘한 바도 있고하여 全國에서 50餘名이 參禮하였고 香料도 70餘萬원의 헌성에 이르는데 大盛況을 이루었다. 11시 정각에 志淵執禮로 初獻官에 在錫 亞獻官에 圭南 鍾獻官에 是贊 祝官들이 分定되어 始終一貫 嚴肅하고도 敬虔하게 茶禮를 올렸다. 또한 茶禮 전날에는 月潭祠 維持管理問題를 協議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月潭公 行蹟 顯彰事業推進을 爲하여 그 代表로 金斗熙 博士를 選出하였다. (一無)

孝行·善行 宗親을 찾습니다.

中央宗親會에서는 孝行과 善行으로 우리 門中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을 널리 찾고 있습니다. 우리 門中이 孝行과 善行을 行함에 앞장서고 있는 家門印을 宗報에 掲載하여 널리 홍보하고자 하니 주변의 美談을 書面 또는 電話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編輯室)

城石里 牧使公墓 移葬公告의 内幕과 金龜淵의 事件

우리 順天金氏 集姓村인 高陽市 城石洞에서 1994年 9月 27日 牧使公(諱粹邁) 派宗中代表 深淵氏와 總務部 淵氏등이 世淵氏와 함께 느닷없이 中央宗親會를 찾아와서 牧使公과 公의 次子이신 察訪 公父子분의 墓所二基를 94年 11月 3日까지 이장하라 는 公告文을 提示하며 對策을 要求하여 왔음으로 事件當事者인 樹淵을 面談要請하였던 바 同日 29日 樹淵氏와 金龜淵의 宗親會로 本會로 왔기 內 事件 內容을 들 어 본 즉 北渚公의 曾祖이신 牧使公 (諱粹邁) 과 아내 대인 察訪公 諱堉의 墓地인 城石洞 山성 석동 7 林野 120 坪 (397 m)을 樹淵의 先代가 個人名義로 所有權登記를 하였 다가 樹淵이 이를 相續받아 金성일에게 매도 하니 金성일은 94年 11月 3日까지 묘를 파내라는 一분묘이장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 보도함으로써 直系後孫들을 분노케 하였다. 龜淵은 묘지를 원상으로 되돌려놓는 代價로 宗親會에서 7千萬원을 내라고 要求하였다. 이 事件은 牧使公의 妻家宅豐山 洪氏宗中에서 林野의 一部(120坪)을 증여받아 公이 별세한후 公의 內외분과 次子의 墓所를 쓰

게된 증거가 확실하고 公의 手들의 證언도 있고 하니 確實한 判決은 此後에 法으로 判明될 것이나 위의 事件에 金龜淵이 關連된 龜淵은 이와는 또 다른 사람에게 宗親會에서 돈을 받고 있으며 宗親會와 한화그룹이 자기들 唯一한 人物로 認定하고 한화그룹이 五千萬원의 어음결제를 약속하였다는 등의 허언을 퍼트려 이를 믿고 피해 입은 安某 등의 金某등이 宗親會로 회회장 林某등이 宗親會장이 金龜淵의 사기 도둑행각을 방조하고 사외의 암적인 존재를 비호 두둔한다"는 터무니 없는 비방과 헐뜯기에 대하여 本宗親會에서는 金龜淵의 사기행각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全國의 宗親들도 이 事件에 의혹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제3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심분 주의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宗務部)

移葬公告文(寫本)

제1차

- ◆분묘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산 57
- ◆분묘기수... 2기
- ◆이장기간... 94년 9월 4일부터 94년 11월 3일까지 관계 자 및 연고자는 이전 하기 바람. 만일 위 기일내 이전하지 않을 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호 및 시행규칙 7조에 의거 임의개장 함. 94년 9월 4일 공고인...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739, 백마마을 202동 802호 김성일 전화... 901 6576

祝

宗報第十號發刊

順天宗親會 會長 金學淳 副會長 金七順 總務 金順洙	聞慶宗親會 會長 金東永 副會長 金秉均 總務 金道賢 監事 金東哲	安東宗親會 會長 金泰錫 副會長 金在完 總務 金鳳錄 監事 金仁煥	釜山宗親會 會長 金允南 副會長 金樂南 總務 金祐永	嶺南大邱地域宗親會 會長 金麟煥 副會長 金嘉淵 總務 金淳淵 監事 金東文 金慶龍 金慶變 金龍濤
---	---	---	---	--

昭俺 金詰熙 宗親 계속하여 一千万원 獻誠 映流亭 補修費로

去年 9月 24日에 月潭祠 孫이고 양정공의 二十代 孫이 外 景德齋의 補修費로 淨財 1 千万원을 본會에 獻誠하여 同日 本報 第九號에 掲載 報 道함으로서 全國宗親의 讚辭 를 받은바 있는 昭俺 金詰熙 宗親이 이번에는 映流亭 補修 費로 淨財 1千万원을 獻誠하 여 한우물(大井) 宗親은 물론 이고 다른 派의 宗親들의 칭송 을 받고 있다.



昭俺 金詰熙는 누구인가

昭俺은 1934年 9月 4 日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에서 양경공의 19代 孫인 東源公 과 晋陽鄭氏 사이에서 五男四 女中 三男으로 태어났으며 海 州 吳瑛錫夫人 과 結婚하여 三男을 둔 다 福한 家庭을 이루고 있고 烏嶺産業社의 社長으로서 堅 實한 企業人으 로서의 位置에 있으며 宗事에 도 남다른 關 心이 있어 現 在 서울宗親會 長과 中央宗親 會 副會長등을 歴任하면서 모 든 宗事に 앞 昭俺은 忍百 堂公의 14代

昭俺은 1934年 9月 4 日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에서 양경공의 19代 孫인 東源公 과 晋陽鄭氏 사이에서 五男四 女中 三男으로 태어났으며 海 州 吳瑛錫夫人 과 結婚하여 三男을 둔 다 福한 家庭을 이루고 있고 烏嶺産業社의 社長으로서 堅 實한 企業人으 로서의 位置에 있으며 宗事에 도 남다른 關 心이 있어 現 在 서울宗親會 長과 中央宗親 會 副會長등을 歴任하면서 모 든 宗事に 앞 昭俺은 忍百 堂公의 14代



映流亭 (소재: 문경시, 가은읍, 소양동)

詩文이 있으며 李退溪先生께 서 公과 더불어 和答하신 詩 句가 公의 逸稿에 남아 있다. 1586年 丙戌 十月二十二 日 六十二歲를 一期로 考終하 시니 墓所는 문경시 가은읍 龜洞子坐原이며 書院에 配享 이시다. 忍百堂은 公의 雅號 이시다.

大井派의 大宗事

映流亭이 年久歲深하여 破 락하니 近者에 와서는 비가 새 는 지경에 이르러 映流亭 補修 가 時急한 宿願事業으로 내리 오던중 이번의 昭俺宗親의 快 舉로 크게 活氣를 띠게 되며 너 도나도 이에 呼應하니 未久에 俺의 處事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낸다. (一無)

金柄中 詩人의 약력과 책머리에 부친 소감을 轉載합니다 (一無)



- 김병중 詩人 약력
- 1955. 12. 11일 경북문경 출생
- 월간(문예) 및 주간(인어세계)로 등단
- 서울문화회, 한빛문화회 동인
- 현재 관세청 김포세관 근무
- 양경공파 인백당공 13대손
- 고-永公의 五男
- 1980 재무장관상 수상
- 1988년 근정포장받음

책 머리에 부끄러웠습니다. 어제 친구를 만났더니 시 쓰기에 바쁘다는 저에게 "현대시는 왜 그리 어렵고 골치 아프게만 쓰느냐? 잘 되었다고 정평있는 시일수록 도무지 무슨 말을 썼는지 통 모르겠더라. 요사이 시 독자보다 시인들이 더 많지 않느냐?"고 오늘날 우리 현대시의 문제를 평이한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예리하게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은몸이 좋아드는 것같이 부끄러웠습니다. 시인들은 스스로의 의미있는 표현을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고, 독자들은 대단하다고 볼수 없는 이미지를 필요이상의 언어적 마술로 난해하게 씀으로서 이미 시가 독자들의 정서를 떠나버린 것이라 하니 이런 시인과 독자와의 괴리현상은 과연 누구의 탓입니까? 굳이 "시는 유용하고 즐거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는 아놀드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와 같이 고도화된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시가 독자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효용가치 있는 진리나 정서의 진말을 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은 시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시는 일종의 고급 대화의 예술입니다. 시인은 시를 쓰고 독자들은 시를 읽고 감동을 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소수보다 다수의 독자들이 있는 시, 시를 읽고 무엇을 얻을 구 있는 시, 시와 독자간의 호흡이 있는 시의 탄생을 위하여 지구상의 만물을 말라하는 아흔아홉 분류의 사물세계를 시의 그릇에 담아 책으로 묶게 되었습니다. 이 시집은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히는 시집이 아니라 시적 대화를 갈구하는 눈빛 밝은 독자들은 물론 5천여 세관 직원들과 무역을 공부하는 학도, 그리고 수출입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수행에도 삼삼한 청량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집을 생활문화, 시민문화를 지향하는 '서울문화회'의 치열한 문학정신에 같은 맥을 두고 이러한 뜻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있기를 바라며,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문학통신 이지룡 남과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가을 김병중

宗報 編輯室을 떠나면서

一無 金 炳 鎔 (宗報編輯室長)



1989年 9月 24日 日本 中央宗親會가 創立되고 그로 부터 만 一年이 되는 199 0年 9月 24日 字 本報 順 天 金氏宗 報를 創刊 하여 이제 十號를 全國宗親 에게 보내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族生 은 創刊에서부터 지금까지 5, 6年間을 淺學薄識을 무릎 쓰고 오로지 誠과 熱을 다하 여 손발로 뛰어 왔습니다. 마 願하면서 편집실을 떠납니다.

祝

宗報 第十號 發刊

Table listing regional branches and members: 南楊州宗親會 (會長 金井洙, 副會長 金南洙, 總務 金鳳均), 仁川宗親會 (會長 金權熙, 副會長 金大錫, 總務 金鳳熙), 府使公宗親會 (會長 金淳璟, 副會長 金廣熙, 總務 金榮熙, 監事 金文熙), 高陽市宗親會 (會長 金商應, 總務 金東學), 大井宗親會 (會長 金佑永, 副會長 金永永, 總務 金炳嵩), 구여울宗親會 (會長 金洛薰, 副會長 金相祐, 總務 金裕哲), 開城派宗親會 (會長 金允烈, 副會長 金東九, 總務 金東錫)



順天金氏宗報

本宗報는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家口當 1부씩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鍾植
編輯室長 金炳鎔

發行所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6-1(대평빌딩)
電話: 02-718-0529

題字
無影金仁厚
<中央宗親會 理事>

故 오명철(요안나) 할머니 영전에 올리는 글



일백살 天壽을 누리시고
학 같이 승천하신 할머니

로써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문종도 빛내게 하였으니 위대하고도 장한 어머니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으셨습시다. 할머니는 항상 효우의 정신(孝友의精神)이 투철하시고 특히 겨레의 돈독에 관심이 깊으셔서 막내아드님 종식(鍾植)이 2대 재회장으로 있는 본 종친회를 백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9월 17일 본회를 찾아 진찰하시면서 임직원들을 위로 격려하시면서 '여러 종친을 상대하다보면 어려움이 많겠지'

자리를 잡으니 어찌 천복(天福)이 아니라요. 김영삼대통령을 위시하여 삼부요인과 정(政) 재(財) 제(制)인사의 조화 수백개가 들러지고 유족들이 빠짐없이 참례한 가운데 김성수 주교의 미사집전과 정철범 신부의 하관집례로 경건하고도 숙복받는 하관식(下棺式)을 마치고 반흔길에는 승연(昇淵)과 호

할머니 오명철(吳明哲) 할머니는 보람찬 일세기(一世紀) 동안 축복 받은 항평생을 사시다가 드디어 지난 2월 25일 열두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화갑이 승천하시니 평소의 자상하시고 청초하시던 자태는 이제 어디서 보일까요. 할머니는 해주 영호의 따님으로 20이 갓 넘은 나이에 의찬공과 가곡공의 12대손인 재민공(在民公)과 결혼함으로써 우리 순천김문(順天金門)과는 80년을 같이 사는 동안 슬하에 4남 1녀가 하나같이 출중(出衆)하여 밖으로 는 국위를 선양하고 안으로

만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화목으로 맺고 풀라 고하신 말씀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종친회내 방기사를 제가 직접 써서 종보 7호를 통하여 전국 종친에게 소상히 알린 바 있어 전종친의 가슴에도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3월 1일 길게 늘어선 장례행렬은 충남 공주의 보물리 선영하에 도착하여 멀리 계룡산을 래룡(來龍)으로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에 부군이신 재민공(在民公)과 합장하니 개하에는 둘째 자제 현암공(玄岩公)의 묘소가 있고 안하(眼下)에는 학의 동지가 있어 유백(幽



나는 부활이오
나를 믿는 자
천국이
천국이

1994년 12월 29
日 木曜日 12시 中央宗親會 會議室에서 景德齋 前都 有司 佑永宗親과 세로任命된 光熙 權熙 五淵有司(景南有司)님은 不參님이 자리를 같이하고 載俊 常任副會長 立會下에 事務引繼引受를 맡았는데 現在 景德齋의 管理 現況과 앞으로의 計劃 등에 對한 詳細한 說明이 있었고 保 有中인 現金八十餘萬圓의 引繼도 圓滿히 이루어 졌다.

代를 이어가며 十餘年間 努力하신 佑永 前都 有司 님에게 慰勞의 拍手를 보낸다 음 光熙 有司 님의 周旋으로 前現職 有司 님과 中央宗親會 幹事 님이 參席하는 忘年 會를 兼한 宴會가 있어 오랜 시간 敦睦을 다졌다.

(一無)

연(吳淵) 손자형제가 사이 좋게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큰이른 '요안나 할머니의 음덕(陰德)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요안나' 할머니의 승천길에 삼가 명복(冥福)을 빌면서 이 글을 올리오니 부디 영세안면(永世安眠) 하소서.

一九九五年 三月 二十四日
일무 김병일 근조
(중앙종친회 부회장)
겸 간사장



景德齋 有司님들 事務引繼引受 마침

1994년 12월 29
日 木曜日 12시 中央宗親會 會議室에서 景德齋 前都 有司 佑永宗親과 세로任命된 光熙 權熙 五淵有司(景南有司)님은 不參님이 자리를 같이하고 載俊 常任副會長 立會下에 事務引繼引受를 맡았는데 現在 景德齋의 管理 現況과 앞으로의 計劃 등에 對한 詳細한 說明이 있었고 保 有中인 現金八十餘萬圓의 引繼도 圓滿히 이루어 졌다.

代를 이어가며 十餘年間 努力하신 佑永 前都 有司 님에게 慰勞의 拍手를 보낸다 음 光熙 有司 님의 周旋으로 前現職 有司 님과 中央宗親會 幹事 님이 參席하는 忘年 會를 兼한 宴會가 있어 오랜 시간 敦睦을 다졌다.

(一無)

公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六期定期總會開催公告

會則第十二條二項에 依據 一九九五年 第六期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個別通知省略)

一九九五年 三月 二十四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一、日時: 一九九五年 四月 二十三(日) 正午(十二時)

二、場所: 서울特別市 中區 長橋洞 五五番地 玄岩빌딩 二十八層 한화그룹 大講堂

三、連絡處: 中央宗親會 電話: 七一八-0五一九番

▼ 전철 2호선·을지로입구역에서 200m거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 三-빌딩앞

三、參席範圍

一、中央宗親會 全任員 및 代議員

二、全國地域宗親會 任員과 뜻있는 宗親

四、議案

一、業務報告

二、第六期 收入支出決算報告

三、第七期 豫算案 審議

四、任員 改選의 件

五、其他 討議事項

全國地域宗親會 會長께서는 順天金氏 宗報가 到着되는 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